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7. 21.(화) 12:00	 통계청
	배포일시	2020. 7. 21.(화) 08:30	
	담당부서	통 계 청 소득통계과 한국은행 국민B/S팀	
	담 당 자	통 계 청 과 장: 김대유(042-481-2206) 사 무 관: 홍현정(042-481-2214)	
		한국은행 팀 장: 손진식(02-759-4375) 과 장: 홍수성(02-759-4415) 과 장: 최정은(02-759-4416)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통계청·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한 “2019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2020. 7.

통 계 청 · 한 국 은 행

차 례

< 요약 >

I.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1.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1
2.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증감	2
3.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3
II. 자산형태별 자산규모	4
1. 총괄	4
2. 건설 및 설비자산	6
3. 지식재산생산물자산	8
4. 토지자산	9
III. 제도부문별 자산규모(비금융자산 기준)	12
IV. 경제활동별 자산규모(고정자산 기준)	18

<참고>

1.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2. 17개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3.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통계표>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1. 이번에 공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소득통계의 기준년 개편 결과(2019.12월)를 반영함에 따라 전체 시계열(1970~2018년)이 개편 수정되었습니다.
2. 국민대차대조표의 추계대상 자산의 범위는 UN의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따르고 있으나 일부 자산은 기초자료의 부족, 추계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제외하였습니다.
 - 현재 귀중품, 군용재고, 수자원, 계약.리스 및 면허권, 영업권 및 마케팅 자산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비금융자산 가액은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에 근거하여 기록하는 기업회계의 자산가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자산의 추계방법은 2008 SNA 및 OECD 「자본측정 매뉴얼」(2009년)의 권고사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 각 자산의 연도별 가액은 연말 기준의 스톡(stock) 통계이므로 플로(flow) 통계와 비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물량기준의 스톡 통계는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만큼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아 총량과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5. 토지자산의 시가평가 작업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등 관련기관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6. 최근 연도의 상첨자 p는 잠정치(preliminary)임을 의미합니다.
7. 모든 수치들은 반올림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숫자가 부분의 총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약 〉

I.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 우리나라의 국민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매년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국민대차대조표 개요 참조)

총괄

- ☐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전년에 비해 1,057.7조원(+6.8%) 증가한 1경 6,621.5조원(국내총생산(1,919.0조원)의 8.7배)
- 비금융자산(순자산의 96.5%)이 1경 6,041.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7,213.1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6,63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순자산의 3.5%)은 580.0조원
- *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5,009억달러)의 원화환산액에 해당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배)

	2017	2018 ^p	증감액		2019 ^p	증감액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국민순자산	14,314.0 [7.8]	15,563.8 [8.2]	1,249.8	8.7	16,621.5 [8.7]	1,057.7	6.8
비금융자산	14,033.6	15,076.1	1,042.5	7.4	16,041.5	965.4	6.4
순금융자산	280.4	487.7	207.3	73.9	580.0	92.3	18.9
금융자산	15,237.5	15,951.2	713.7	4.7	17,213.1	1,261.9	7.9
금융부채	14,957.1	15,463.5	506.4	3.4	16,633.1	1,169.6	7.6

주: 1)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자산형태별

- 비금융자산중 생산자산은 2019년말 7,221.5조원으로 전년대비 422.7조원(+6.2%) 늘어났으며 비생산자산은 8,820.0조원으로 542.7조원(+6.6%) 증가
- 생산자산중 건설자산은 309.7조원(+6.1%) 증가하였고 설비자산은 45.7조원(+5.2%), 지식재산생산물은 40.1조원(+8.3%) 각각 증가
 - 비생산자산중 토지자산은 541.4조원(+6.6%) 증가하였으며 지하자원 및 입목자산도 각각 0.7조원(+2.5%), 0.6조원(+2.3%) 증가

비금융자산 규모

(단위: 조원, %)

	2017	2018 ^p	증감액	증감률	2019 ^p	증감액	증감률
비금융자산	14,033.6	15,076.1	1,042.5	7.4	16,041.5	965.4	6.4
생산자산	6,343.7	6,798.8	455.1	7.2	7,221.5	422.7	6.2
고정자산	5,977.0	6,402.1	425.1	7.1	6,797.6	395.5	6.2
건설자산	4,692.2	5,043.4	351.2	7.5	5,353.1	309.7	6.1
설비자산	846.5	876.0	29.5	3.5	921.7	45.7	5.2
지식재산생산물	438.3	482.7	44.5	10.1	522.9	40.1	8.3
재고자산	366.6	396.6	30.0	8.2	423.8	27.2	6.9
비생산자산	7,690.0	8,277.3	587.4	7.6	8,820.0	542.7	6.6
토지자산	7,638.9	8,225.6	586.6	7.7	8,767.0	541.4	6.6
지하자원	26.5	26.4	-0.1	-0.2	27.1	0.7	2.5
입목자산	24.5	25.3	0.8	3.2	25.9	0.6	2.3

제도부문별

- 2019년말 기준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9,307.1조원(56.0%), 일반정부 4,390.7조원(26.4%), 비금융법인기업 2,553.6조원(15.4%), 금융법인기업이 370.1조원(2.2%)으로 나타남
- 2019년중 금융법인은 전년대비 19.1%, 일반정부는 7.8%,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6.8%, 비금융법인은 3.5% 각각 증가

제도부문별 국민순자산 규모

(단위: 조원, %)

	2017	2018 ^p	증감액	증감률	2019 ^p	증감액	증감률
국 민 순 자 산	14,314.0 (100.0)	15,563.8 (100.0)	1,249.8	8.7	16,621.5 (100.0)	1,057.7	6.8
비 금융 법 인	1,943.3 (13.6)	2,467.5 (15.9)	524.3	27.0	2,553.6 (15.4)	86.1	3.5
금 융 법 인	250.3 (1.7)	310.7 (2.0)	60.5	24.2	370.1 (2.2)	59.4	19.1
일 반 정 부	3,862.9 (27.0)	4,074.4 (26.2)	211.5	5.5	4,390.7 (26.4)	316.3	7.8
가 계 및 비 영 리	8,257.6 (57.7)	8,711.1 (56.0)	453.5	5.5	9,307.1 (56.0)	596.0	6.8

주: 1) ()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경제활동별

- 2018년말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 4,646.8조원 (72.6%), 광업·제조업 1,302.6조원(20.3%), 전기·가스 및 수도업 330.0조원 (5.2%), 농림어업 69.8조원(1.1%), 건설업 53.0조원(0.8%) 등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별 자료는 기초자료 부재 등으로 2018년이 최근 자료임

** 부동산업(주거용 건물 등),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정부 보유 자산) 등 포함

- 2018년중 광업·제조업은 7.6%, 서비스업은 7.2%, 건설업은 6.0%,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5.1%, 농림어업은 2.4% 각각 증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2016	2017	증감액 증감률		2018 ^p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전 산 업	5,643.1 (100.0)	5,977.0 (100.0)	333.9	5.9	6,402.1 (100.0)	425.1	7.1
농 립 어 업	66.6 (1.2)	68.2 (1.1)	1.6	2.4	69.8 (1.1)	1.6	2.4
광 업·제 조 업	1,124.3 (19.9)	1,210.3 (20.2)	86.0	7.6	1,302.6 (20.3)	92.3	7.6
전기·가스·수도업	302.9 (5.4)	314.1 (5.3)	11.3	3.7	330.0 (5.2)	15.9	5.1
건 설 업	47.4 (0.8)	50.0 (0.8)	2.5	5.4	53.0 (0.8)	3.0	6.0
서 비 스 업	4,102.0 (72.7)	4,334.5 (72.5)	232.5	5.7	4,646.8 (72.6)	312.3	7.2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 기준 2) () 내는 해당 산업의 자산보유 비중(%)

II.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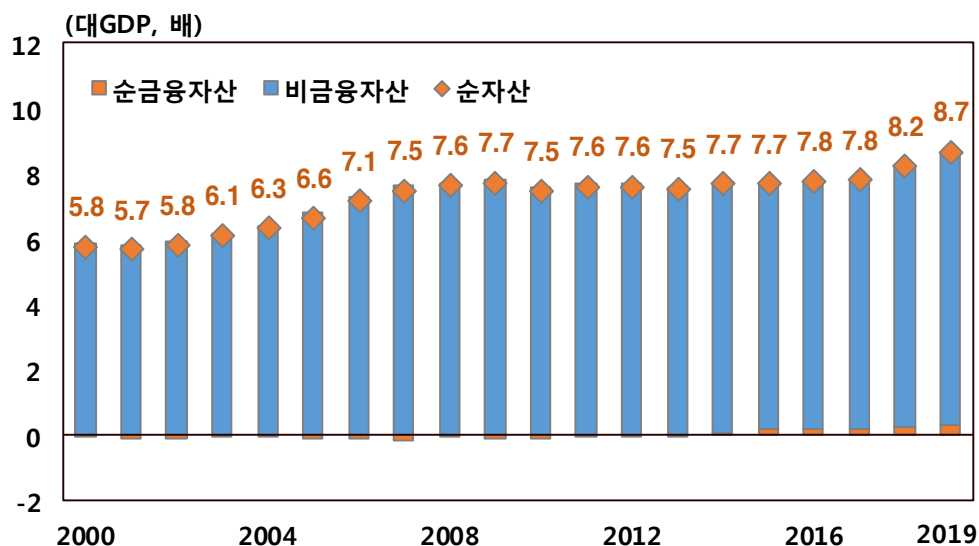
① 국민순자산(國富)은 명목GDP의 8.7배

□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1경 6,621.5조원)은 명목 국내총생산(1,919.0조원) 대비 8.7배로 전년(8.2배)에 비해 증가

- 2019년중 순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난 데다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비생산 자산이 증가

*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확대로 대외금융자산이 늘어나면서 전년말에 비해 648억달러 증가(2017년 2,617억달러 → 2018년 4,362억달러 → 2019년 5,009억달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GDP(명목) 배율



주: 2000~2007년중 순금융자산은 국제투자대조표(IIP)에 나타난 순대외 금융자산의 원화환산액임

국민순자산/GDP(명목) 배율의 구성내역 변화

(단위: 배,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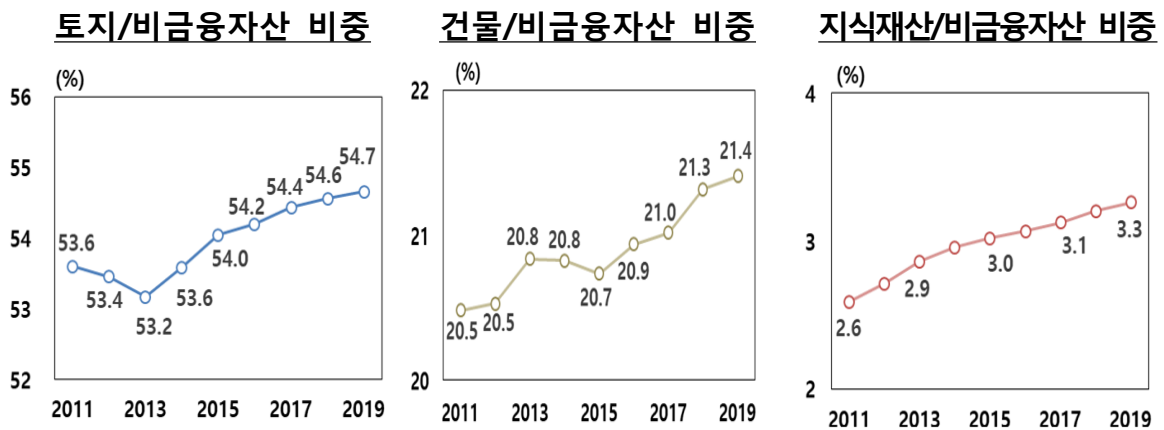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p	증감(p)	2019 ^p	증감(p)
국민순자산	7.7	7.8	7.8	8.2	0.40	8.7	0.46
비금융자산	7.5	7.6	7.6	7.9	0.30	8.4	0.41
생산자산	3.4	3.4	3.5	3.6	0.13	3.8	0.18
비생산자산	4.1	4.1	4.2	4.4	0.17	4.6	0.24
순금융자산	0.1	0.2	0.2	0.3	0.10	0.3	0.05

② 부동산 및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

□ 2019년중 토지, 건물, 지식재산생산물이 증가세(각각 6.6%, 6.8%, 8.3% 증가)를 보임에 따라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과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

* 토목건설, 설비자산 등은 비중 축소

- 토지 비중은 2013년 53.2%로 저점을 기록한 후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9년 54.7%까지 확대되고 건물 비중도 2015년 이후 상승세
- 지식재산생산물 비중은 R&D 투자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상승세 지속



비금융자산 대비 자산별 비중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P	2019 ^P
건설자산	34.7	34.3	33.8	33.7	33.4	33.5	33.4
건물	20.8	20.8	20.7	20.9	21.0	21.3	21.4
토목건설	13.8	13.5	13.1	12.8	12.4	12.1	12.0
설비자산	6.0	6.0	6.1	6.0	6.0	5.8	5.7
지식재산생산물	2.9	3.0	3.0	3.1	3.1	3.2	3.3
R&D	2.0	2.1	2.1	2.2	2.2	2.3	2.3
재고자산	2.9	2.8	2.7	2.6	2.6	2.6	2.6
토지자산	53.2	53.6	54.0	54.2	54.4	54.6	54.7
지하·임목자산	0.4	0.4	0.4	0.4	0.4	0.3	0.3

③ 비금융자산 가격 오름세 둔화

□ 2019년중 비금융자산 가격*은 4.2% 올라 전년(2018년중 4.9%)에 비해 오름세 둔화

* 비금융자산의 명목가액을 연쇄실질가액으로 나누어 계산

○ 2019년중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 임목자산)과 생산자산 가격 상승률은 각각 5.2%, 2.9%로 전년(각각 6.3%, 3.3%)에 비해 둔화

비금융자산 가격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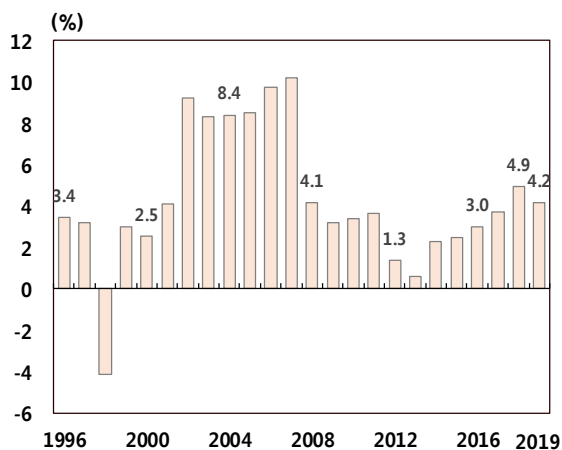
(단위: %)

	02~07	08~11	12~19	2015	2016	2017	2018 ^p	2019 ^p
비금융자산	9.1	3.6	2.8	2.5	3.0	3.7	4.9	4.2
생산자산	4.4	4.3	1.5	0.5	1.6	1.7	3.3	2.9
비생산자산	13.2	3.0	4.0	4.3	4.2	5.4	6.3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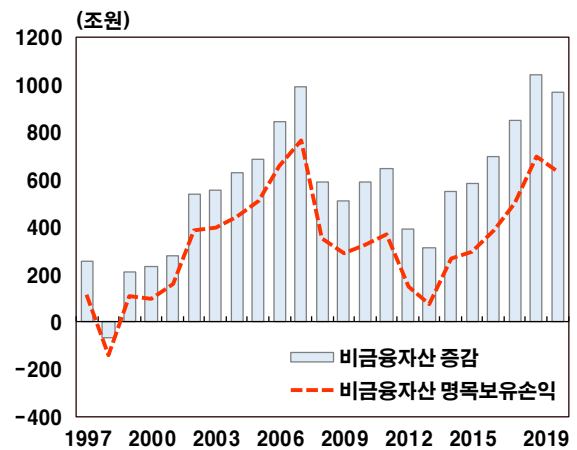
□ 비금융자산의 가격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비금융자산의 명목보유손익*도 전년대비 감소

* 비금융자산 명목보유손익(조원): 385.4(16년) → 497.5(17년) → 697.5(18년)
→ 633.7(19년)

비금융자산 가격상승률



비금융자산 증감 및 명목보유손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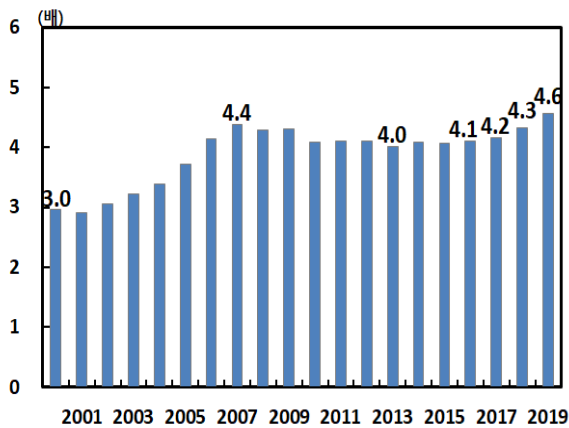
4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상승

2019년말 토지자산의 GDP 대비 배율은 4.6배를 기록하여 전년(4.3배)에 비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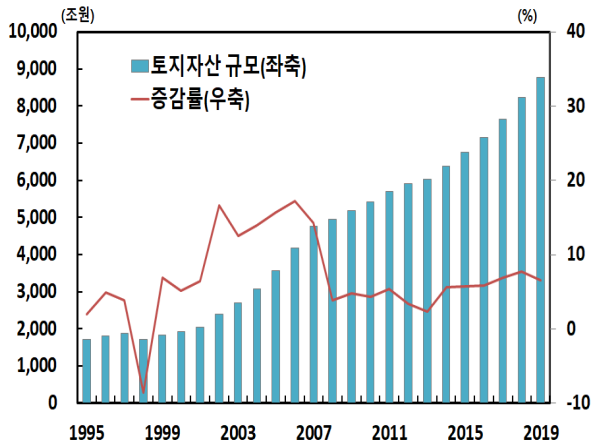
* 토지자산의 GDP 대비 배율(배): 4.4(07년) → 4.0(13년) → 4.2(17년) → 4.3(18년) → 4.6(19년)

- 이는 2019년중 GDP(명목기준)가 1.1% 늘어난 반면 토지자산은 6.6% 증가한 데 기인
- 토지유형별로는 건물부속토지와 문화오락용 토지(공원, 체육용지 등)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2019년중 토지자산 유형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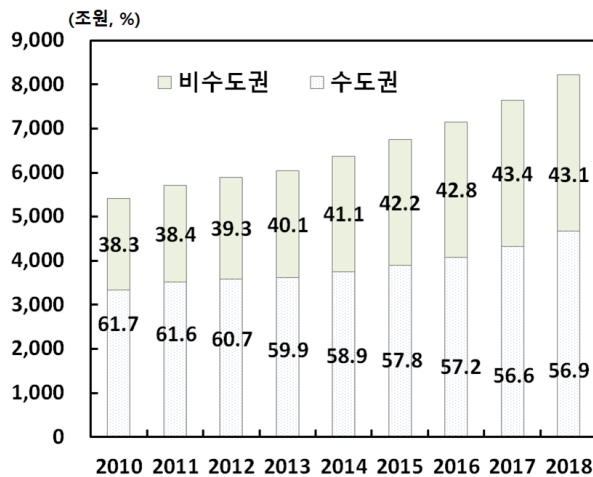
	토지	건물부속	구축물부속	농경지 및 임야	문화오락용 및 기타
증감률	6.6	7.3	5.6	4.7	7.2

5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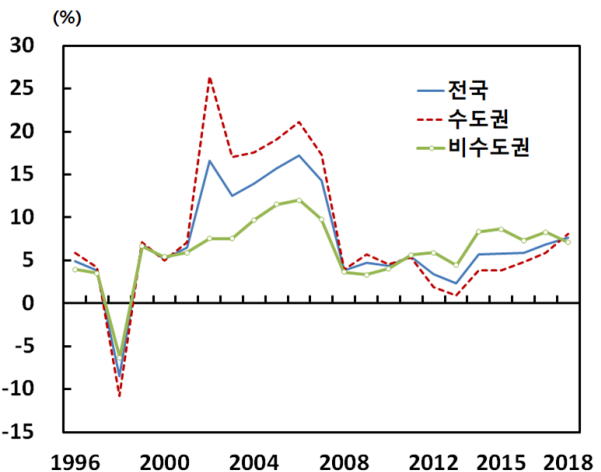
□ 토지자산의 수도권 비중은 2012년 세종시 출범, 2013년 이후 지방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완화된 모습이었으나 2018년에는 증가로 전환

- 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 비중은 2010년 61.7%에서 2017년 56.6%로 낮아지다가 2018년 56.9%로 증가한 모습
- 2000년대에 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게 유지되다가 2011년 이후 역전되었으나 2018년에는 수도권이 다시 높게 나타남

수도권 및 비수도권 토지자산 추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토지자산 증감률 추이



지역별 토지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2016	구성비	증감률	2017	구성비	증감률	2018 ^p	구성비	증감률
전국	7,146.5	(100.0)	5.9	7,638.9	(100.0)	6.9	8,225.6	(100.0)	7.7
수도권	4,087.3	(57.2)	4.8	4,326.2	(56.6)	5.8	4,677.8	(56.9)	8.1
비수도권	3,059.2	(42.8)	7.3	3,312.7	(43.4)	8.3	3,547.8	(43.1)	7.1
특·광역시	3,287.4	(46.0)	5.6	3,533.9	(46.3)	7.5	3,838.8	(46.7)	8.6
세종	71.1	(1.0)	10.6	80.0	(1.0)	12.4	87.6	(1.1)	9.6
도	3,859.1	(54.0)	6.1	4,105.0	(53.7)	6.4	4,386.8	(53.3)	6.9
제주	144.9	(2.0)	20.2	169.4	(2.2)	16.9	185.3	(2.3)	9.4

주: 1) 당해년말 명목가액 기준 2) () 내는 토지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⑥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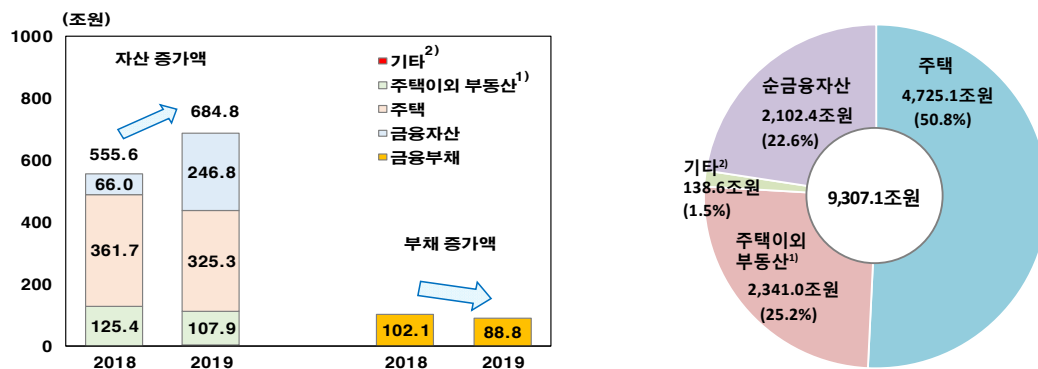
□ 2019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2018년 +555.6조원 → 2019년 +684.8조원)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고 부채(+102.1조원 → +88.8조원)는 축소되면서 순자산(+453.5조원 → +596.0조원) 증가폭 확대

○ 주택자산은 증가폭이 축소(+361.7조원 → +325.3조원)되었으나 금융기관 예치금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은 증가폭 확대(+66.0조원 → +246.8조원)

* 2019년중 예금은행 가계예금(말잔기준)은 2018년대비 50.5조원(+8.2%) 증가하여 2018년(18.3조원, +3.1%)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주택 4,725.1조원(50.8%), 주택이외 부동산 2,341.0조원(25.2%), 순금융자산 2,102.4조원(22.6%) 등으로 구성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산·부채 증감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 구성(2019년)



주: 1) 주택이외 건물 및 토지 2) 설비자산, 재고자산, 입목자산 등

<참고>

2019년말 현재 가구당 순자산

□ 국민B/S에서는 가계부문만을 별도로 추계하고 있지 않아서 가구당 순자산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을 추계가구 수로 나누어보면 2019년말 현재 4억 6,268만원** (2018년 말 4억 3,838만원 대비 +5.5%)으로 추정

*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일반가계 이외에 소규모 개인사업자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를 포괄

**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9,307조원) ÷ 추계가구(20,116천 호)

○ PPP 환율 기준으로는 538천달러(2018년중 미국은 863천달러, 호주 742천달러, 캐나다 599천달러, 프랑스 521천달러, 일본 486천달러)

7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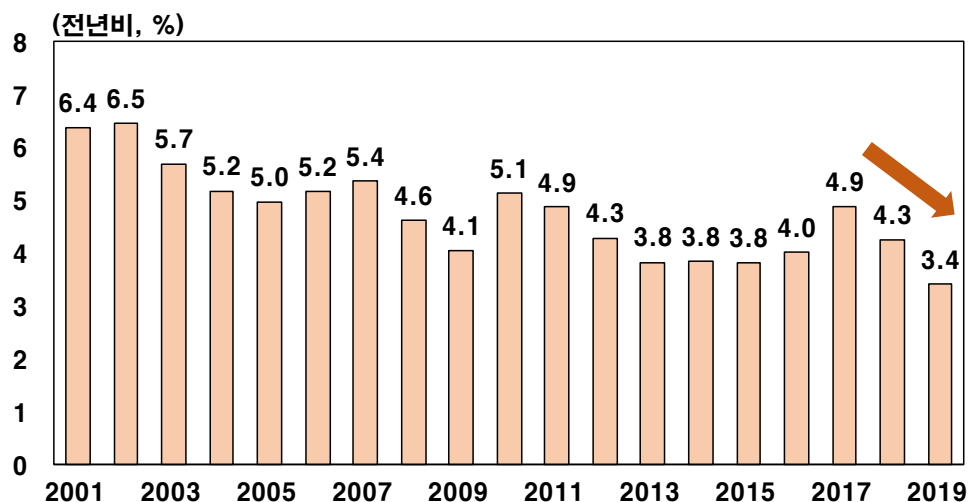
□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2017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여 2019년중 3.4%를 나타냄

* 자본서비스는 비금융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 일반적으로 자본서비스는 자본서비스물량을 지칭하며 자본서비스물량은 자본투입물량으로 측정

○ 2019년중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줄어들면서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하락*

* 내용연수가 짧고 감가상각률이 높아 자본서비스물량 산출효과가 큰 설비투자의 감소가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하락을 주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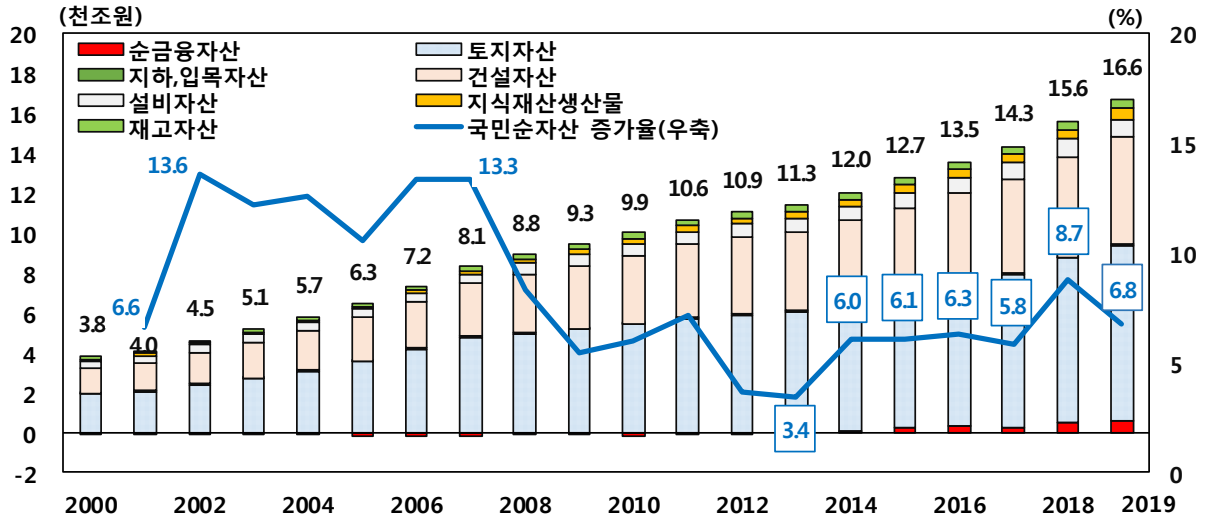
자산별 실질투자 및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실질투자 증가율(% , %p)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		
	2018(A)	2019 ^p (B)	B-A	2018 ^p (A)	2019 ^p (B)	기여도 (B-A, %p)
고정자산 전체	-2.2	-2.8	-0.6	4.3	3.4	-0.9
건설자산	-4.6	-2.5	2.1	1.7	1.6	-0.1
설비자산	-2.3	-7.5	-5.1	1.3	0.8	-0.6
지식재산생산물	4.4	3.0	-1.4	1.2	1.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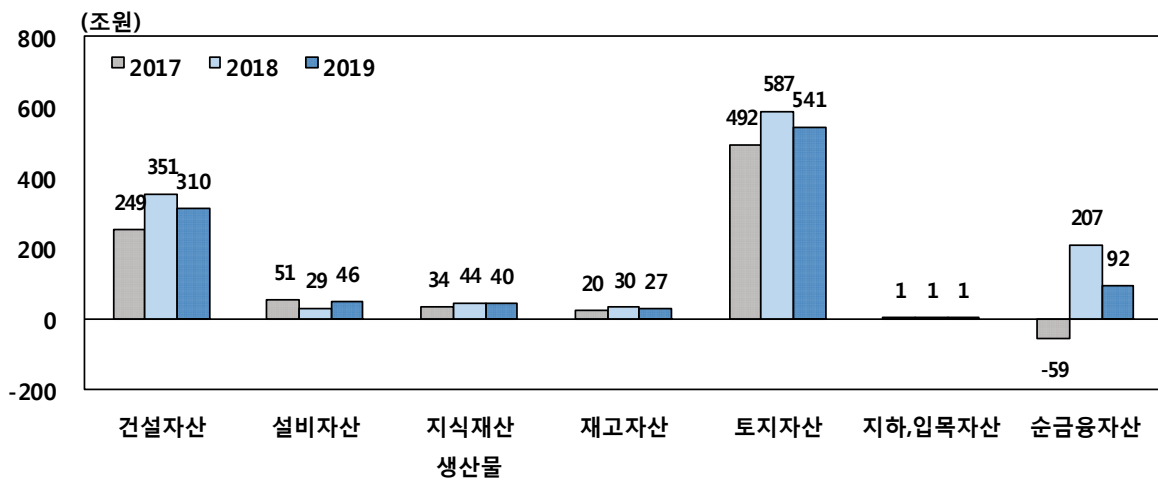
<참 고>

국민대차대조표 주요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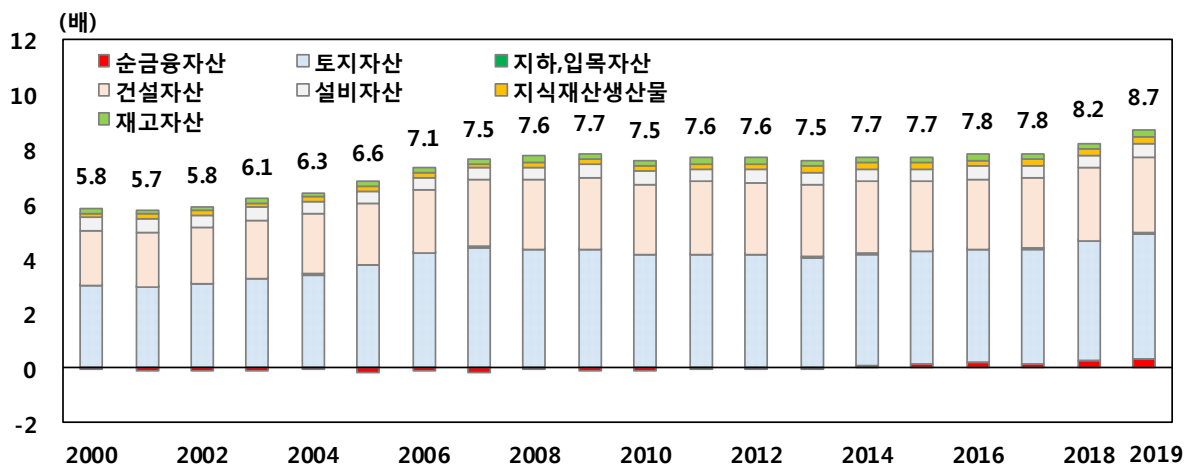
1. 국민순자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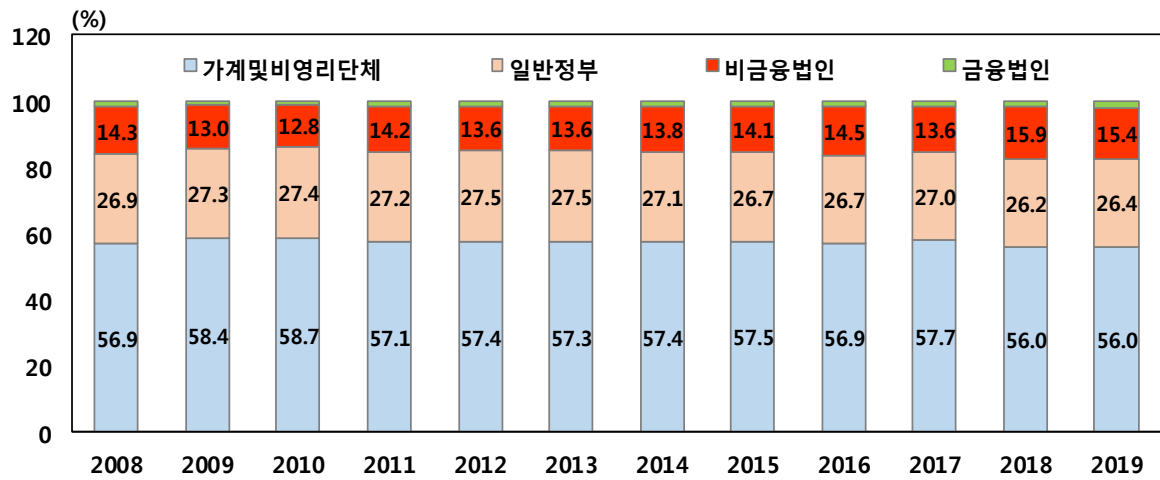
2. 자산별 증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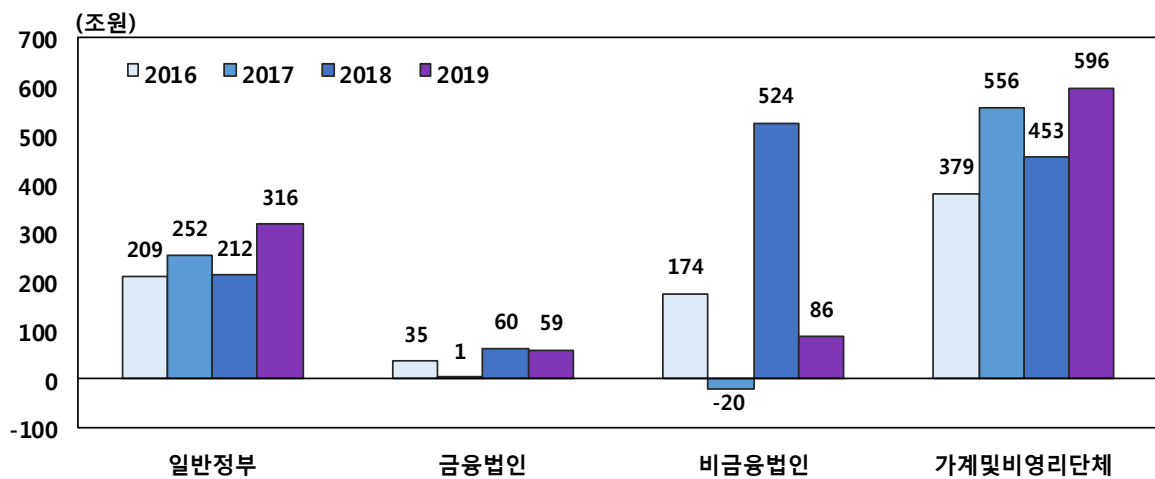
3. 국민순자산/GDP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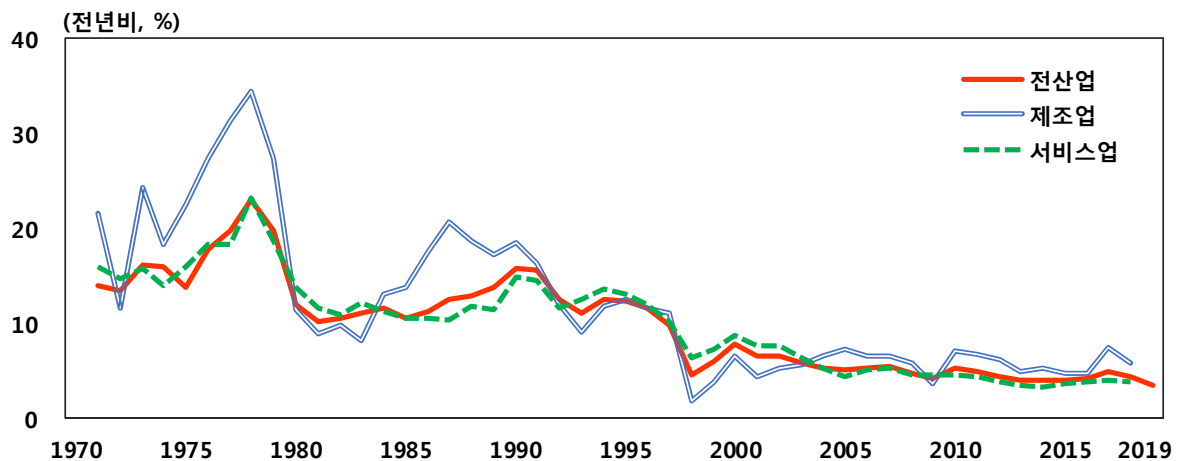
4. 제도부문별 순자산 비중



5.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6.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 국민순자산 규모 및 증감

□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國富)은 1경 6,62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1,919.0조원)의 8.7배 수준

○ 비금융자산이 1경 6,041.5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자산(1경 7,213.1조원)에서 금융부채(1경 6,633.1조원)를 뺀 순금융자산*은 580.0조원

*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5,009억달러: 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의 원화 환산액에 해당

□ 2019년중 국민순자산은 1,057.7조원 증가(1경 5,563.8조원 → 1경 6,621.5조원)

○ 비금융자산이 965.4조원 증가한 데다 금융자산(+1,261.9조원)도 금융부채(+1,169.6조원) 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순금융자산도 92.3조원 증가

국민대차대조표

(단위: 조원, %, 배)

		비금융 법인	금융 법인	일반 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국외
2018 ^p 년말	비금융자산(A_0)	4,694.8	176.1	3,438.5	6,766.7	15,076.1	-
	순금융자산($B_0=a_0-b_0$)	-2,227.3	134.6	635.9	1,944.4	487.7	-482.3
	금융자산(a_0)	2,693.1	7,886.5	1,637.0	3,734.6	15,951.2	1,241.3
	금융부채(b_0)	4,920.4	7,751.8	1,001.1	1,790.2	15,463.5	1,723.6
	순자산($C_0=A_0+B_0$)	2,467.5 <15.9>	310.7 <2.0>	4,074.4 <26.2>	8,711.1 <56.0>	15,563.8 <100.0>	-482.3 <8.2>
2019 ^p 년중 증감	비금융자산(A_1-A_0)	294.1	14.8	218.4	438.1	965.4	-
	순금융자산(B_1-B_0)	-208.0	44.6	97.9	157.9	92.3	-92.1
	금융자산(a_1-a_0)	107.5	751.3	156.3	246.8	1,261.9	146.7
	금융부채(b_1-b_0)	315.5	706.8	58.5	88.8	1,169.6	238.8
	순자산(C_1-C_0)	86.1	59.4	316.3	596.0	1,057.7	-92.1
2019 ^p 년말	비금융자산(A_1)	4,988.9	190.9	3,657.0	7,204.7	16,041.5	-
	순금융자산($B_1=a_1-b_1$)	-2,435.3	179.2	733.7	2,102.4	580.0	-574.4
	금융자산(a_1)	2,800.6	8,637.8	1,793.3	3,981.4	17,213.1	1,388.0
	금융부채(b_1)	5,235.9	8,458.6	1,059.6	1,879.0	16,633.1	1,962.4
	순자산($C_1=A_1+B_1$)	2,553.6 <15.4>	370.1 <2.2>	4,390.7 <26.4>	9,307.1 <56.0>	16,621.5 <100.0>	-574.4 <8.7>

주: 1) < > 내는 각 경제주체의 순자산이 국민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 내는 국내총생산 대비 배율(배)

2.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및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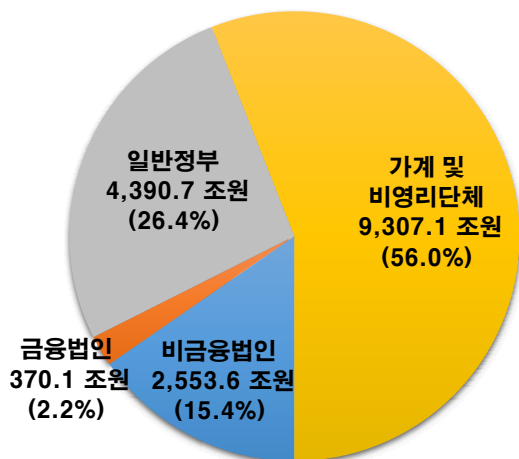
□ 제도부문별로는 2019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9,307.1조원으로 가장 많은 순자산을 보유(국민순자산의 56.0%)

- 다음으로 일반정부 4,390.7조원(26.4%), 비금융법인기업 2,553.6조원(15.4%), 금융법인기업이 370.1조원(2.2%)의 순자산을 각각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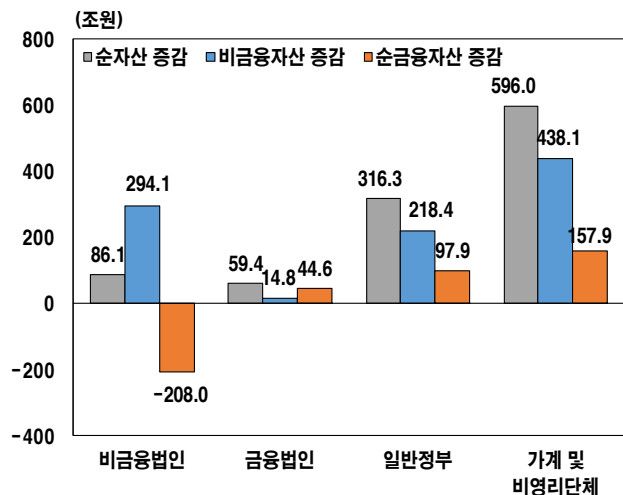
□ 2019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 금융법인은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이 모두 증가하였고, 비금융법인은 비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순자산이 증가

- 2019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596.0조원 증가(비금융자산 +438.1조원, 순금융자산 +157.9조원)
- 비금융법인 순자산은 86.1조원 증가(비금융자산 +294.1조원, 순금융자산 -208.0조원)
- 일반정부의 순자산은 316.3조원 증가(비금융자산 +218.4조원, 순금융자산 +97.9조원)하였으며 금융법인의 순자산도 59.4조원 증가(비금융자산 +14.8조원, 순금융자산 +44.6조원)

2019년말 제도부문별 순자산 규모



2019년중 제도부문별 순자산 증감



3.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 2019년중 국민순자산은 1,057.7조원 증가하였는데 이중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에 의한 증가가 280.9조원(26.6%), 거래외 요인에 의한 증가가 776.9조원(73.4%)

- 거래요인에 의한 증감(280.9조원)은 비금융자산 순취득이 216.6조원, 금융자산 순취득이 64.2조원
- 거래외 증감(776.9조원)의 경우 각각 명목보유손익이 633.7조원, 자산량 기타증감이 115.1조원,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이 28.1조원을 기록

국민순자산 증감요인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p	2019 ^p
순자산 증감	797.3 (100.0)	788.3 (100.0)	1,249.8 (100.0)	1,057.7 (100.0)
거래에 의한 증감	319.8 (40.1)	356.2 (45.2)	322.9 (25.8)	280.9 (26.6)
비금융자산 순취득	200.0 (25.1)	251.6 (31.9)	236.3 (18.9)	216.6 (20.5)
금융자산 순취득	119.7 (15.0)	104.7 (13.3)	86.6 (6.9)	64.2 (6.1)
거래외 증감	477.5 (59.9)	432.1 (54.8)	926.9 (74.2)	776.9 (73.4)
자산량기타증감 ¹⁾	111.8 (14.0)	98.6 (12.5)	108.6 (8.7)	115.1 (10.9)
명목보유손익 ²⁾	385.4 (48.3)	497.5 (63.1)	697.5 (55.8)	633.7 (59.9)
금융자산 거래외 증감	-19.7 (-2.5)	-164.0 (-20.8)	120.7 (9.7)	28.1 (2.7)

주: 1) 간척, 토지의 용도변경, 자연재해, 지하자원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자산변동을 기록

2)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순자산 증감을 나타냄

3) () 내는 순자산 증감에서 해당 요인에 의한 증감이 차지하는 비중(%)

II 자산형태별 자산규모

1. 총괄

□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명목가액은 1경 6,0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배 수준

○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8,767.0조원, 54.7%)과 건설자산(5,353.1조원, 33.4%)이 전체의 88.0% 차지

* 토지자산과 건설자산은 GDP 대비 각각 4.6배 및 2.8배 수준

○ 이 외에 설비자산(921.7조원, 5.7%), 재고자산(423.8조원, 2.6%) 및 지식재산생산물(522.9조원, 3.3%) 등이 전체의 12.0% 차지

자산형태별 자산규모¹⁾

(단위: 조원, 배, %)

	2016		2017		2018 ^p		2019 ^p	
비금융자산	13,186.0	[7.6]	14,033.6	[7.6]	15,076.1	[7.9]	16,041.5	[8.4]
생산자산	5,989.6	(45.4)	6,343.7	(45.2)	6,798.8	(45.1)	7,221.5	(45.0)
건설자산	4,443.0	(33.7)	4,692.2	(33.4)	5,043.4	(33.5)	5,353.1	(33.4)
설비자산	795.6	(6.0)	846.5	(6.0)	876.0	(5.8)	921.7	(5.7)
지식재산생산물	404.5	(3.1)	438.3	(3.1)	482.7	(3.2)	522.9	(3.3)
재고자산	346.4	(2.6)	366.6	(2.6)	396.6	(2.6)	423.8	(2.6)
비생산자산	7,196.4	(54.6)	7,690.0	(54.8)	8,277.3	(54.9)	8,820.0	(55.0)
토지자산	7,146.5	(54.2)	7,638.9	(54.4)	8,225.6	(54.6)	8,767.0	(54.7)
지하자원	26.2	(0.2)	26.5	(0.2)	26.4	(0.2)	27.1	(0.2)
입목자산	23.7	(0.2)	24.5	(0.2)	25.3	(0.2)	25.9	(0.2)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 2019년중 비금융자산은 토지자산과 건설자산 등의 증가로 전년에 비해 965.4조원(6.4%) 증가

* 토지자산(56.1%) 및 건설자산(32.1%)이 비금융자산 전체 증가의 88.2% 기여

○ 토지자산이 전년대비 541.4조원(6.6%) 증가하고 건설자산도 전년대비 309.7조원(6.1%) 증가

○ 설비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은 전년대비 각각 45.7조원(5.2%), 40.1조원(8.3%) 증가

자산형태별 자산증감¹⁾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697.2	(100.0)	847.7	(100.0)	1,042.5 (100.0)	7.4	965.4	(100.0)	6.4
생산자산	298.2	(42.8)	354.1	(41.8)	455.1 (43.7)	7.2	422.7	(43.8)	6.2
건설자산	221.3	(31.7)	249.2	(29.4)	351.2 (33.7)	7.5	309.7	(32.1)	6.1
설비자산	34.8	(5.0)	50.9	(6.0)	29.5 (2.8)	3.5	45.7	(4.7)	5.2
지식재산생산물	27.6	(4.0)	33.8	(4.0)	44.5 (4.3)	10.1	40.1	(4.2)	8.3
재고자산	14.5	(2.1)	20.2	(2.4)	30.0 (2.9)	8.2	27.2	(2.8)	6.9
비생산자산	398.9	(57.2)	493.6	(58.2)	587.4 (56.3)	7.6	542.7	(56.2)	6.6
토지자산	397.2	(57.0)	492.5	(58.1)	586.6 (56.3)	7.7	541.4	(56.1)	6.6
지하자원	1.0	(0.1)	0.3	(0.0)	-0.1 (0.0)	-0.2	0.7	(0.1)	2.5
입목자산	0.8	(0.1)	0.8	(0.1)	0.8 (0.1)	3.2	0.6	(0.1)	2.3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비금융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2. 건설 및 설비자산

□ 2019년말 현재 건설 및 설비자산은 6,274.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3배 수준

* GDP 대비 건설·설비자산 배율(배): 3.0(16년) → 3.0(17년) → 3.1(18년) → 3.3(19년)

- 건설자산은 토목건설 1,919.4조원(30.6%), 주거용건물 1,722.1조원(27.4%), 비주거용건물 1,711.6조원(27.3%) 등 총 5,353.1조원으로 전체의 85.3% 차지
- 설비자산은 기계류 655.0조원(10.4%)과 운송장비 254.1조원(4.0%) 등 총 921.7조원으로 전체의 14.7% 차지

건설 및 설비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배, %)

	2016		2017		2018 ^P		2019 ^P	
건설 및 설비자산	5,238.7	[3.0]	5,538.7	[3.0]	5,919.4	[3.1]	6,274.8	[3.3]
건설자산	4,443.0	(84.8)	4,692.2	(84.7)	5,043.4	(85.2)	5,353.1	(85.3)
주거용건물	1,363.8	(26.0)	1,466.6	(26.5)	1,607.9	(27.2)	1,722.1	(27.4)
비주거용건물	1,397.0	(26.7)	1,482.7	(26.8)	1,605.8	(27.1)	1,711.6	(27.3)
토목건설	1,682.2	(32.1)	1,743.0	(31.5)	1,829.7	(30.9)	1,919.4	(30.6)
설비자산	795.6	(15.2)	846.5	(15.3)	876.0	(14.8)	921.7	(14.7)
운송장비	219.1	(4.2)	229.8	(4.1)	234.5	(4.0)	254.1	(4.0)
기계류	563.2	(10.8)	603.4	(10.9)	629.0	(10.6)	655.0	(10.4)
육성생물자원	13.3	(0.3)	13.3	(0.2)	12.4	(0.2)	12.6	(0.2)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내는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 2019년중 건설 및 설비자산은 주거 및 비주거용건물 등 건설자산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355.4조원(6.0%) 증가

* 주거용건물(32.2%)과 비주거용건물(29.8%)이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증가의 61.9% 기여

○ 건설자산은 전년대비 309.7조원(6.1%)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6년 221.3(증가율 5.2%) → 17년 249.2(5.6%)
→ 18년 351.2(7.5%) → 19년 309.7(6.1%)

—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은 각각 114.3조원(7.1%)과 105.8조원(6.6%) 증가

○ 설비자산은 전년대비 45.7조원(5.2%)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6년 34.8(증가율 4.6%) → 17년 50.9(6.4%)
→ 18년 29.5(3.5%) → 19년 45.7(5.2%)

—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전년대비 각각 26.0조원(4.1%), 19.6조원(8.3%) 증가

건설 및 설비자산 증감¹⁾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건설 및 설비자산	256.2 (100.0)	300.1 (100.0)	380.7 (100.0)	6.9	355.4 (100.0)	6.0
건설자산	221.3 (86.4)	249.2 (83.0)	351.2 (92.3)	7.5	309.7 (87.1)	6.1
주거용건물	91.0 (35.5)	102.8 (34.3)	141.3 (37.1)	9.6	114.3 (32.2)	7.1
비주거용건물	80.1 (31.3)	85.7 (28.5)	123.1 (32.3)	8.3	105.8 (29.8)	6.6
토목건설	50.2 (19.6)	60.7 (20.2)	86.8 (22.8)	5.0	89.6 (25.2)	4.9
설비자산	34.8 (13.6)	50.9 (17.0)	29.5 (7.7)	3.5	45.7 (12.9)	5.2
운송장비	12.3 (4.8)	10.6 (3.5)	4.8 (1.3)	2.1	19.6 (5.5)	8.3
기계류	22.1 (8.6)	40.2 (13.4)	25.6 (6.7)	4.2	26.0 (7.3)	4.1
육성생물자원	0.4 (0.1)	0.0 (0.0)	-0.9 (-0.2)	-6.6	0.1 (0.0)	1.1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건설 및 설비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3. 지식재산생산물자산

□ 2019년말 현재 지식재산생산물(IPPs)자산은 522.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27배 수준

* GDP 대비 IPPs 배율(배): 0.13(00년) → 0.19(10년) → 0.23(15년) → 0.27(19년)

○ 지식재산생산물자산은 연구개발(R&D) 372.3조원(71.2%)과 기타지식재산생산물 150.6조원(28.8%)으로 구성

지식재산생산물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배, %)

	2016	2017	2018 ^p	2019 ^p
지식재산생산물자산	404.5 [0.23]	438.3 [0.24]	482.7 [0.25]	522.9 [0.27]
연구개발(R&D)	283.5 (70.1)	307.4 (70.1)	342.6 (71.0)	372.3 (71.2)
기타지식재산생산물	121.0 (29.9)	130.9 (29.9)	140.1 (29.0)	150.6 (28.8)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내는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대비 구성비(%)

□ 2019년중 지식재산생산물(IPPs)자산은 2019년중 연구개발(R&D)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40.1조원(8.3%) 증가

* 연구개발(R&D)이 지식재산생산물자산 전체 증가의 73.9% 기여

○ 연구개발(R&D)은 전년대비 29.6조원(8.6%)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6년 20.7(증가율 7.9%) → 17년 23.9(8.4%)
→ 18년 35.2(11.5%) → 19년 29.6(8.6%)

지식재산생산물자산 증감¹⁾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지식재산생산물자산	27.6 (100.0)	33.8 (100.0)	44.5 (100.0)	10.1	40.1 (100.0)	8.3
연구개발(R&D)	20.7 (75.2)	23.9 (70.7)	35.2 (79.2)	11.5	29.6 (73.9)	8.6
기타지식재산생산물	6.8 (24.8)	9.9 (29.3)	9.3 (20.8)	7.1	10.5 (26.1)	7.5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지식재산생산물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4. 토지자산

□ 2019년말 현재 토지자산은 8,767.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6배 수준

*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배): 4.1(16년) → 4.2(17년) → 4.3(18년) → 4.6(19년)

- 건물·구축물부속토지는 주거용건물부속토지 3,334.7조원(38.0%), 비주거용 건물부속토지 1,976.2조원(22.5%) 및 구축물부속토지 907.4조원(10.4%) 등 총 6,218.3조원으로 전체의 70.9% 차지
- 농경지와 임야는 각각 1,192.5조원(13.6%)과 566.2조원(6.5%)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0.1% 차지

토지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배, %)

	2016	2017	2018 ^p	2019 ^p
토지자산	7,146.5 [4.1]	7,638.9 [4.2]	8,225.6 [4.3]	8,767.0 [4.6]
건물·구축물부속토지	4,979.8 (69.7)	5,359.9 (70.2)	5,809.2 (70.6)	6,218.3 (70.9)
주거용건물부속토지	2,641.4 (37.0)	2,847.4 (37.3)	3,101.8 (37.7)	3,334.7 (38.0)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574.2 (22.0)	1,704.0 (22.3)	1,848.0 (22.5)	1,976.2 (22.5)
구축물부속토지	764.2 (10.7)	808.5 (10.6)	859.4 (10.4)	907.4 (10.4)
농경지	1,018.4 (14.3)	1,073.3 (14.1)	1,134.6 (13.8)	1,192.5 (13.6)
임야	501.2 (7.0)	519.7 (6.8)	544.8 (6.6)	566.2 (6.5)
문화오락용토지	220.2 (3.1)	239.1 (3.1)	264.3 (3.2)	287.7 (3.3)
기타토지	426.9 (6.0)	447.0 (5.9)	472.7 (5.7)	502.4 (5.7)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3) () 내는 토지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 2019년중 토지자산은 주거용건물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여 541.4조원(6.6%) 증가

* 주거용건물부속토지(43.0%) 및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23.7%)가 토지자산 전체 증가의 66.7% 기여

○ 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전년대비 232.9조원(7.5%)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52.6(16년) → 206.0(17년) → 254.3(18년) → 232.9(19년)

○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는 전년대비 128.2조원(6.9%) 증가

* 전년대비 증감(조원): 106.0(16년) → 129.8(17년) → 144.0(18년) → 128.2(19년)

토지자산 증감¹⁾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토지자산	397.2 (100.0)	492.5 (100.0)	586.6 (100.0)	7.7	541.4 (100.0)	6.6
건물·구축물부속토지	293.5 (73.9)	380.1 (77.2)	449.3 (76.6)	8.4	409.1 (75.6)	7.0
주거용건물부속토지	152.6 (38.4)	206.0 (41.8)	254.3 (43.4)	8.9	232.9 (43.0)	7.5
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06.0 (26.7)	129.8 (26.4)	144.0 (24.5)	8.5	128.2 (23.7)	6.9
구축물부속토지	34.9 (8.8)	44.3 (9.0)	51.0 (8.7)	6.3	48.0 (8.9)	5.6
농경지	45.3 (11.4)	54.9 (11.1)	61.3 (10.5)	5.7	57.9 (10.7)	5.1
임야	17.5 (4.4)	18.4 (3.7)	25.1 (4.3)	4.8	21.4 (4.0)	3.9
문화오락용토지	15.7 (3.9)	18.9 (3.8)	25.2 (4.3)	10.5	23.3 (4.3)	8.8
기타토지	25.2 (6.4)	20.2 (4.1)	25.7 (4.4)	5.7	29.7 (5.5)	6.3

주: 1) 연말 자산가액 기준 증감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토지자산 전체 증감 대비 기여율(%)

□ 토지자산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지역의 자산규모는 4,677.8조원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 전년대비 증감률은 8.1%로 수도권 이외지역(7.1%) 증가율을 상회

○ 2018년중 수도권 비중은 전년대비 확대(56.6%→56.9%),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축소(43.4%→43.1%)

* 전년대비 증감률(수도권): 4.8%(16년) → 5.8%(17년) → 8.1%(18년)
(비수도권): 7.3%(16년) → 8.3%(17년) → 7.1%(18년)

○ 2018년중 특광역시 비중은 전년대비 확대(46.3%→ 46.7%), 도 지역 비중은 축소(53.7%→53.3%)

— 세종시 및 제주도가 높은 증가세 시현

* 전년대비 증감률(세종시): 10.6%(16년) → 12.4%(17년) → 9.6%(18년)
(제주도): 20.2%(16년) → 16.9%(17년) → 9.4%(18년)

지역별 토지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2016	2017	증감률 ²⁾	2018 ^p	증감률 ²⁾
전국	7,146.5 (100.0)	7,638.9 (100.0)	6.9	8,225.6 (100.0)	7.7
수도권	4,087.3 (57.2)	4,326.2 (56.6)	5.8	4,677.8 (56.9)	8.1
수도권 이외	3,059.2 (42.8)	3,312.7 (43.4)	8.3	3,547.8 (43.1)	7.1
특광역시	3,287.4 (46.0)	3,533.9 (46.3)	7.5	3,838.8 (46.7)	8.6
세종	71.1 (1.0)	80.0 (1.0)	12.4	87.6 (1.1)	9.6
도	3,859.1 (54.0)	4,105.0 (53.7)	6.4	4,386.8 (53.3)	6.9
제주	144.9 (2.0)	169.4 (2.2)	16.9	185.3 (2.3)	9.4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자산가액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토지자산 전체 대비 구성비(%)

가 총 괄

□ 2019년말 현재 제도부문별로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자산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7,204.7조원(44.9%), 비금융법인기업 4,988.9조원(31.1%), 일반정부 3,657.0조원(22.8%), 금융법인 190.9조원(1.2%)

○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비생산자산 비중(각각 72.0%, 59.8%)이 높은 반면,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은 생산자산 비중(각각 72.6%, 58.9%)이 높게 나타남

—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일반정부는 토지(주거용 토지, 사회기반시설 관련 토지, 농경지, 임야) 비중이 높고 비금융법인의 경우 생산 및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설비자산, 지식재산생산물 및 재고자산 비중이 높은 수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내경제
비금융자산	4,988.9 <31.1>	190.9 <1.2>	3,657.0 <22.8>	7,204.7 <44.9>	16,041.5 <100.0>
생산자산	3,619.9 (72.6)	112.5 (58.9)	1,471.5 (40.2)	2,017.6 (28.0)	7,221.5 (45.0)
건설자산	2,084.3 (41.8)	86.7 (45.4)	1,286.8 (35.2)	1,895.4 (26.3)	5,353.1 (33.4)
설비자산	729.6 (14.6)	8.6 (4.5)	121.9 (3.3)	61.5 (0.9)	921.7 (5.7)
지식재산생산물	415.2 (8.3)	17.2 (9.0)	59.4 (1.6)	30.9 (0.4)	522.9 (3.3)
재고자산	390.7 (7.8)	0.0 (0.0)	3.3 (0.1)	29.8 (0.4)	423.8 (2.6)
비생산자산	1,369.1 (27.4)	78.4 (41.1)	2,185.5 (59.8)	5,187.1 (72.0)	8,820.0 (55.0)
토지자산	1,341.1 (26.9)	78.4 (41.1)	2,176.8 (59.5)	5,170.7 (71.8)	8,767.0 (54.7)
지하자원	27.1 (0.5)	0.0 (0.0)	0.0 (0.0)	0.0 (0.0)	27.1 (0.2)
임목자산	0.9 (0.0)	0.0 (0.0)	8.6 (0.2)	16.4 (0.2)	25.9 (0.2)

주: 1)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2019년말 기준

2) < > 내는 각 제도부문이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비중(%)

3) () 내는 제도부문 내에서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 2019년중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 추이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와 비금융법인의 비금융자산이 각각 438.1조원(+6.5%), 294.1조원(+6.3%) 증가

○ 일반정부와 금융법인은 각각 218.4조원(+6.4%), 14.8조원(+8.4%) 증가

제도부문별 비금융자산 증감¹⁾

(단위: 조원, %)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국 내 경 제	697.2 (100.0)	847.7(100.0)	1,042.5 (100.0)	7.4	965.4 (100.0)	6.4
비 금 융 법 인	219.2 (31.4)	284.4 (33.5)	332.9 (31.9)	7.6	294.1 (30.5)	6.3
금 융 법 인	11.1 (1.6)	14.2 (1.7)	16.2 (1.6)	10.2	14.8 (1.5)	8.4
일 반 정 부	152.4 (21.9)	150.2 (17.7)	203.7 (19.5)	6.3	218.4 (22.6)	6.4
가 계 및 비 영 리 단 체	314.5 (45.1)	398.9 (47.1)	489.6 (47.0)	7.8	438.1 (45.4)	6.5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나) 가계 및 비영리단체

□ 2019년말 현재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7,204.7조원으로 2018년말(6,766.7조원) 대비 6.5% 증가

○ 생산자산은 2019년말 2,017.6조원으로 2018년말(1,897.2조원)에 비해 6.3% 증가하였으며 이중 건설자산이 6.5%, 설비자산이 1.6%, 지식재산생산물이 9.3% 각각 증가

○ 비생산자산은 2019년말 5,187.1조원으로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2018년말(4,869.4조원) 대비 6.5% 증가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5,878.1 [3.4]	6,277.0 [3.4]	6,766.7 [3.6]	7.8	7,204.7 [3.8]	6.5
생산자산	1,644.7	1,750.2	1,897.2	8.4	2,017.6	6.3
건설자산	1,533.3	1,634.3	1,779.4	8.9	1,895.4	6.5
설비자산	60.2	61.3	60.6	-1.2	61.5	1.6
지식재산생산물	22.7	25.3	28.3	11.8	30.9	9.3
재고자산	28.4	29.3	29.0	-1.1	29.8	2.8
비생산자산	4,233.4	4,526.8	4,869.4	7.6	5,187.1	6.5
토지자산	4,218.5	4,511.3	4,853.4	7.6	5,170.7	6.5
지하자원	-	-	-	-	-	-
임목자산	14.9	15.5	16.0	3.1	16.4	2.3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다) 비금융법인기업

□ 2019년말 현재 비금융법인기업이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4,988.9조원으로 2018년말(4,694.8조원) 대비 6.3% 증가

○ 생산자산은 2019년말 3,619.9조원으로 2018년말(3,415.2조원)에 비해 6.0% 증가

— 건설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이 각각 5.8%, 8.8%의 증가율을 나타냄

○ 비생산자산은 2019년말 1,369.1조원으로 2018년말(1,279.6조원) 대비 7.0% 증가

— 토지자산은 7.1%, 지하자원은 2.5% 증가

비금융법인기업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4,077.5 [2.3]	4,361.9 [2.4]	4,694.8 [2.5]	7.6	4,988.9 [2.6]	6.3
생산자산	3,012.3	3,193.0	3,415.2	7.0	3,619.9	6.0
건설자산	1,750.0	1,840.3	1,969.8	7.0	2,084.3	5.8
설비자산	629.9	674.3	699.6	3.8	729.6	4.3
지식재산생산물	318.2	345.6	381.7	10.4	415.2	8.8
재고자산	314.2	332.8	364.1	9.4	390.7	7.3
비생산자산	1,065.2	1,168.9	1,279.6	9.5	1,369.1	7.0
토지자산	1,038.3	1,141.6	1,252.3	9.7	1,341.1	7.1
지하자원	26.2	26.5	26.4	-0.2	27.1	2.5
입목자산	0.8	0.8	0.9	7.7	0.9	5.2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라) 일반정부

□ 2019년말 현재 일반정부가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3,657.0조원으로 2018년말(3,438.5조원) 대비 6.4% 증가

○ 생산자산은 2019년말 1,471.5조원으로 2018년말(1,381.5조원)에 비해 6.5% 증가

○ 비생산자산은 2019년말 2,185.5조원으로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2018년말(2,057.1조원) 대비 6.2% 증가

일반정부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3,084.7 [1.8]	3,234.8 [1.8]	3,438.5 [1.8]	6.3	3,657.0 [1.9]	6.4
생산자산	1,242.5	1,303.6	1,381.5	6.0	1,471.5	6.5
건설자산	1,092.4	1,144.5	1,213.9	6.1	1,286.8	6.0
설비자산	97.0	102.4	107.3	4.8	121.9	13.6
지식재산생산물	49.3	52.2	56.6	8.5	59.4	4.9
재고자산	3.8	4.5	3.6	-21.5	3.3	-6.2
비생산자산	1,842.2	1,931.2	2,057.1	6.5	2,185.5	6.2
토지자산	1,834.1	1,923.0	2,048.6	6.5	2,176.8	6.3
지하자원	-	-	-	-	-	-
임목자산	8.1	8.2	8.4	2.8	8.6	2.1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마) 금융법인기업

□ 2019년말 현재 금융법인기업이 보유한 비금융자산 규모는 190.9조원으로 2018년말(176.1조원) 대비 8.4% 증가

- 생산자산은 2019년말 112.5조원으로 2018년말(104.9조원)에 비해 7.3% 증가한 가운데 건설자산과 지식재산생산물이 각각 7.9%, 7.2% 증가
- 비생산자산은 토지자산이 2019년말 78.4조원으로 2018년말(71.2조원) 대비 10.1% 증가

금융법인기업 비금융자산 규모¹⁾

(단위: 조원, %, 배)

	2016	2017	2018 ^p	증감률 ²⁾	2019 ^p	증감률 ²⁾
비금융자산	145.7 [0.1]	159.9 [0.1]	176.1 [0.1]	10.2	190.9 [0.1]	8.4
생산자산	90.1	96.8	104.9	8.4	112.5	7.3
건설자산	67.3	73.2	80.3	9.7	86.7	7.9
설비자산	8.5	8.5	8.5	0.0	8.6	1.2
지식재산생산물	14.3	15.1	16.1	6.4	17.2	7.2
재고자산	-	-	-		-	
비생산자산	55.6	63.1	71.2	12.9	78.4	10.1
토지자산	55.6	63.1	71.2	12.9	78.4	10.1
지하자원	-	-	-		-	
임목자산	-	-	-		-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 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율(배)

IV 경제활동별 자산규모[고정자산 기준]

□ 2018년말 기준 경제활동별 고정자산 규모는 서비스업 4,646.8조원(72.6%), 광업·제조업 1,302.6조원(20.3%), 전기·가스 및 수도업 330.0조원(5.2%), 농림어업 69.8조원(1.1%), 건설업 53.0조원(0.8%) 등으로 나타남

○ 전산업 기준으로 2018년중 고정자산이 7.1% 증가한 가운데 광업·제조업 7.6%(1,210.3조원 → 1,302.6조원), 서비스업 7.2%(4,334.5조원 → 4,646.8조원), 건설업 6.0%(50.0조원 → 53.0조원), 전기·가스 및 수도업 5.1%(314.1조원 → 330.0조원) 각각 증가

○ 서비스업 내에서는 전통서비스업이 8.0% 증가하고, 사회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각각 6.1%, 5.6% 증가

경제활동별 자산규모¹⁾

(단위: 조원, %)

	2015	2016	2017	증감률 ²⁾	2018 ^p	증감률 ²⁾
전 산 업	5,359.4(100.0)	5,643.1(100.0)	5,977.0(100.0)	5.9	6,402.1(100.0)	7.1
농 립 어 업	64.8 (1.2)	66.6 (1.2)	68.2 (1.1)	2.4	69.8 (1.1)	2.4
광 업 · 제 조 업	1,064.0 (19.9)	1,124.3 (19.9)	1,210.3 (20.2)	7.6	1,302.6 (20.3)	7.6
전기·가스 및 수도업 ³⁾	291.7 (5.4)	302.9 (5.4)	314.1 (5.3)	3.7	330.0 (5.2)	5.1
건 설 업	45.3 (0.8)	47.4 (0.8)	50.0 (0.8)	5.4	53.0 (0.8)	6.0
서 비 스 업	3,893.7 (72.7)	4,102.0 (72.7)	4,334.5 (72.5)	5.7	4,646.8 (72.6)	7.2
전 통 서 비 스 업 ⁴⁾	2,277.1 (42.5)	2,414.7 (42.8)	2,566.5 (42.9)	6.3	2,772.4 (43.3)	8.0
지식기반서비스업 ⁵⁾	370.8 (6.9)	387.1 (6.9)	406.0 (6.8)	4.9	428.8 (6.7)	5.6
사 회 서 비 스 업 ⁶⁾	1,245.8 (23.2)	1,300.2 (23.0)	1,362.0 (22.8)	4.8	1,445.5 (22.6)	6.1

주: 1) 당해년말 명목 순자본스톡(자산가액) 기준 2) 연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포함

4)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부동산, 사업지원, 예술스포츠, 기타 서비스업

5) 금융보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6) 공공행정·국방, 교육, 의료보건사회복지

7) () 내는 해당 산업의 자산보유 비중(%)

<참고1>

자본서비스물량지수*(고정자산 기준)

* 자본서비스는 비금융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 일반적으로 자본서비스는 자본서비스물량을 지칭하며 자본서비스물량은 자본투입물량으로 측정

□ 2019년중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경제전체 기준)은 3.4%로 2018년말(4.3%) 대비 0.9%p 하락

○ 비금융법인, 금융법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2019년중 각각 3.4%, 4.0%, 3.3%로 2018년(4.6%, 4.2%, 4.0%)에 비해 각각 1.3%p, 0.2%p, 0.7%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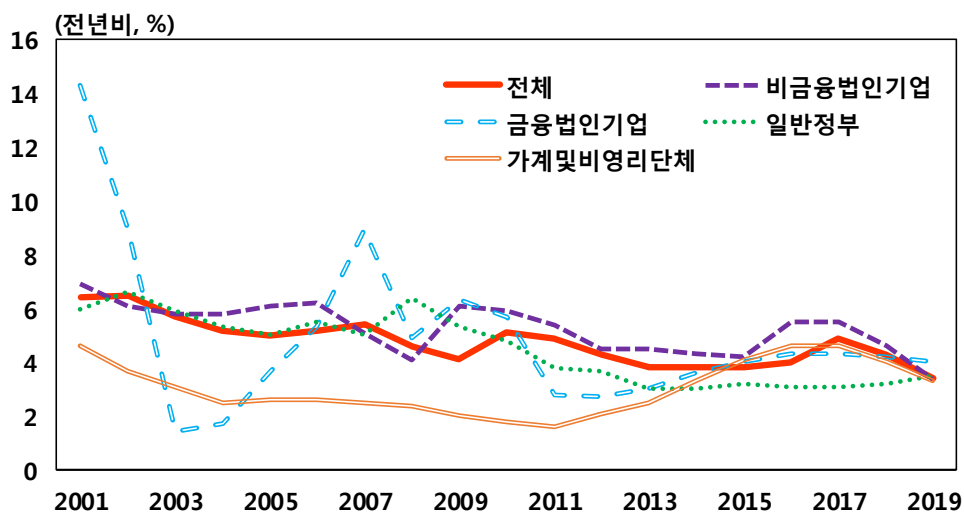
○ 반면 일반정부의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은 2019년중 3.5%로 2018년(3.2%)에 비해 0.3%p 상승

제도부문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¹⁾ 증가율

(단위: %, %p)

	2016 ^P	2017 ^P	2018 ^P (A)	2019 ^P (B)	B-A(%p)
경 제 전 체	4.0	4.9	4.3	3.4	-0.9
비 금융 법 인	4.2	5.5	4.6	3.4	-1.3
금 융 법 인	4.0	4.3	4.2	4.0	-0.2
일 반 정 부	3.2	3.1	3.2	3.5	0.3
가계및비영리단체	4.1	4.6	4.0	3.3	-0.7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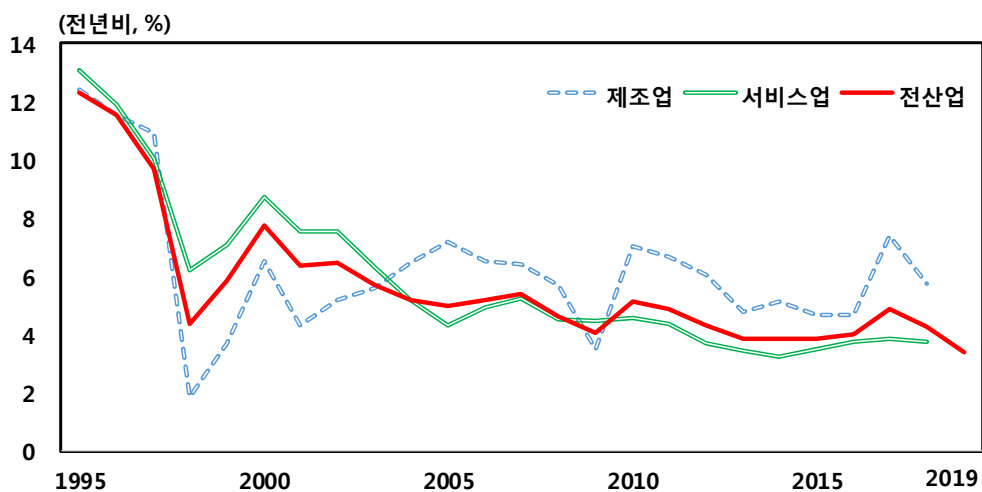
□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보면 2018년중 광업·제조업(-1.6%p) 증가율 하락폭이 가장 큰 가운데, 전기·가스 및 수도업(-0.9%p), 농림어업(-0.8%p), 건설업(-0.6%p) 및 서비스업(-0.1%p)도 증가율 하락

경제활동별 자본서비스물량지수¹⁾ 증가율

(단위: %, %p)

	2015	2016 ^p	2017 ^p (A)	2018 ^p (B)	B-A(%p)
전 산 업	3.8	4.0	4.9	4.3	-0.6
농 립 어 업	-0.4	-0.2	-0.6	-1.3	-0.8
광 업 · 제 조 업	4.7	4.7	7.4	5.7	-1.6
전기 · 가스 및 수도업	3.2	2.7	2.4	1.5	-0.9
건 설 업	1.2	2.1	2.8	2.1	-0.6
서 비 스 업	3.5	3.8	3.8	3.8	-0.1

주: 1) 연쇄라스파이레스 물량지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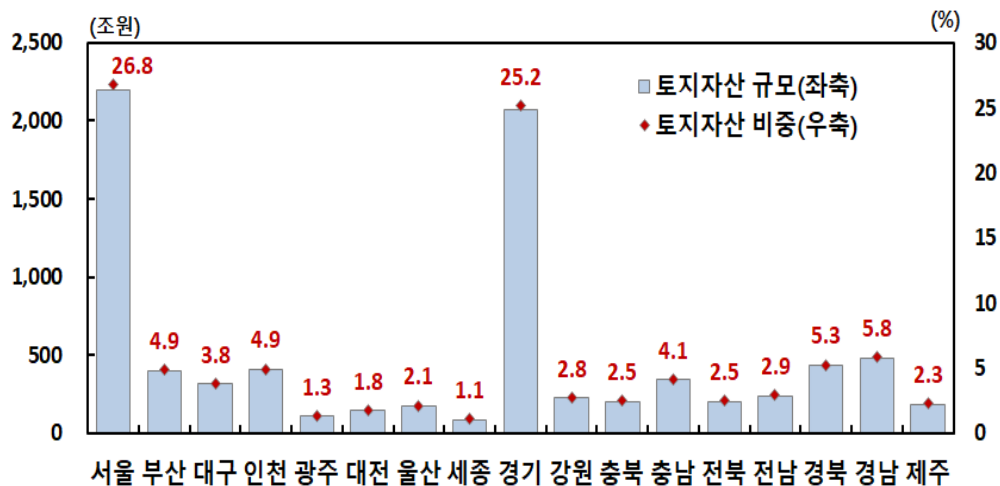


<참고2>

17개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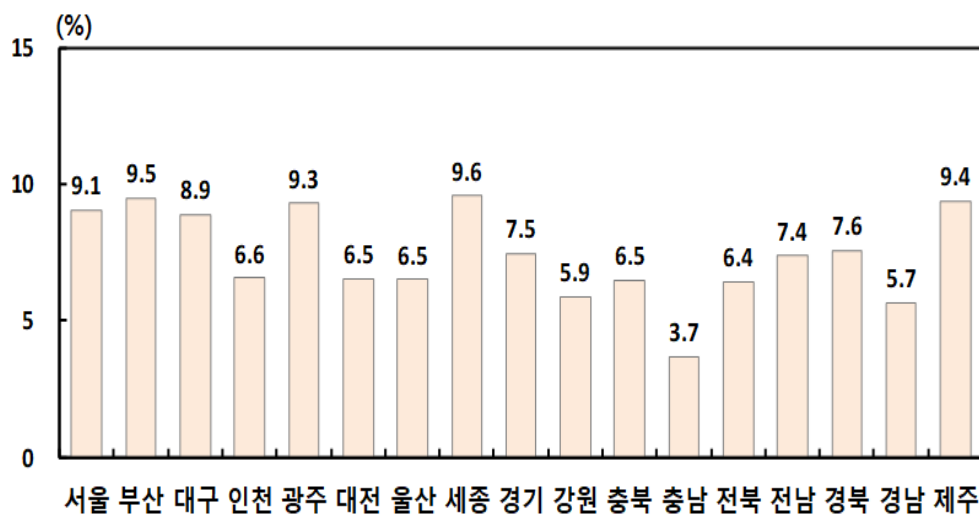
- 2018년말 기준 시도별 토지자산은 서울이 2,201.1조원으로 전체 토지자산의 26.8%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2,071.6조원(25.2%), 경남 480.9조원(5.8%), 경북 433.2조원(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및 비중(2018년 기준)



- 2018년중 세종이 9.6%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그 외 부산(+9.5%), 제주(+9.4%), 광주(+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 전년대비 증감률(2018년 기준)



<참고3>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개요

1. 의의

-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제도부문)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임
 - 이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편제기준(2008 SNA)과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작성
- 국민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장기간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경제의 재산상태(국부 또는 국민순자산)를 파악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경제주체의 재무건전성 분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 분석(생산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 작성 대상과 범위

- 국민대차대조표에는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곤란한 일부 자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자산(부채)과 비금융자산의 가액이 기록됨
 - 금융자산(부채)에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과 SDRs,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준비금, 채권, 대출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파생금융상품, 기타 수취채권 및 지급채무 등이 해당
 - 비금융자산은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크게 구분됨
 - 생산자산: 건설자산(건물, 토목건설), 설비자산(운송장비, 기계류, 육성 생물자원), 지식재산생산물(R&D, 기타지식재산생산물), 재고 자산
 - 비생산자산: 토지자산, 지하자원, 임목자산
- 국민대차대조표의 작성 항목은 자산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의 3가지로 구분됨

- 비금융자산계정: 국민경제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 제도부문계정: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를 기록
- 경제활동계정: 경제활동별 자산 규모 및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기록

3. 작성 기준

-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은 대차대조표 작성시점의 현재(시장)가격으로 평가
 -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사용하되 시장가격이 없을 경우 자산 특성에 따라 비용접근법(취득가격의 현재가격 전환), 소득접근법(미래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 거래사례비교법 등을 이용하여 현재가격을 추정함
 - 각 자산에 대해 당해년가격 기준(명목)과 2015년(기준년) 연쇄가격 기준(실질)으로 구분하여 평가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스톡통계를 이용하되, 비금융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계산
 - 대부분의 생산자산에 대해서는 OECD 자본측정매뉴얼에서 권고하는 영구 재고법(perpetual inventory method)을 적용하여 생산자본스톡과 순자본 스톡을 모두 계산
 - 다만, 육성생물자원, 재고자산 및 비생산자산(토지자산, 지하자원과 임목 자산)은 순자본스톡만 계산
- 순자본스톡(자산가액)은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가액으로,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대차대조표 기록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것임
 - 자산의 폐기액과 감가상각액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액의 규모를 알 수 있음
- 생산자본스톡은 과거에 투자된 자산 가운데 폐기하지 않고 현재 보유중인 자산을 그 연령을 감안하여 생산능력(효율)을 평가한 것임
 - 자산의 폐기액과 생산능력의 저하분을 모두 제외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생산 및 생산성 분석에 사용되는 스톡 통계임

- 순자본스톡이나 생산자본스톡뿐만 아니라 생산성 분석의 기초자료인 자본투입 물량도 작성
 - 자본투입물량은 과거 투자 활동으로 축적된 생산자본스톡을 실제 생산과정에 투입할 때 자본재가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를 물량으로 계측한 것으로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본서비스물량(지수)으로 기록됨

4. 자산별 스톡가액 추계방법

- 금융자산/부채는 자금순환표의 통계를 이용하며, 비금융자산은 해당 자산의 특성과 기초자료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구재고법, 물량가격법, 현재가치법 등 3가지 방법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스톡 가액을 추계
 - 일부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영구재고법을, 육성생물자원과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은 물량가격법(또는 직접추계법)을, 지하자원과 임목 자산은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함
- 영구재고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계방법으로 자산의 폐기, 마모,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하여 자본스톡을 계산하는 것임
 - 특히 자산의 폐기확률, 생산능력 저하, 가치의 하락 등을 감안하여 계산된 자산군 연령-생존함수, 연령-효율함수 및 연령-가격함수를 장기 투자시계열과 각각 결합하여 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및 순자본스톡을 계산함

① 연령-생존함수와 총자본스톡

- 연령-생존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자산이 폐기될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투자한 자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산(총자본스톡)이 남아있는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됨

② 연령-효율함수와 생산자본스톡

- 연령-효율함수는 자산의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가 어떻게 저하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임

* 노동이 생산과정에서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노동서비스라고 하는 것처럼 자본이 제공하는 생산적 서비스를 자본서비스라고 말함. 예를 들어 주택은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주거서비스를 제공함

- 연령-폐기함수와 연령-효율함수를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총자산의 생산능력(생산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③ 연령-가격함수와 순자본스톡

- 자산의 가격은 내용연수 동안 자산이 제공하는 (미래)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해당 자산의 연령이 늘어나면 (미래)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산 가격도 하락함(감가상각)
 - 특히, (미래)수익은 자본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연령-가격함수는 연령-효율함수에 연동하여 산출됨
 - 연령-가격함수와 투자시계열을 결합하면 현재 남아있는 자산의 가치, 즉 순자본스톡을 계산할 수 있음
- 물량가격법은 국민대차대조표 기록시점에 존재하는 자산의 물량(수량)에 대응되는 시장가격을 곱하여 자산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임
- 행정자료 등을 통해 물량(수량)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육성생물자원이나 재고자산 및 토지자산을 측정할 때 사용
- 지하자원 및 임목자산은 UN 등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민계정의 편제기준과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의 권고에 따라 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계산
- 광물과 에너지자원에서부터 기대되는 미래수익(자원지대)은 지하자원이 채굴되지 않은 매장상태로 평가하기 위해 채굴비용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 임목자산은 아직 벌목되지 않는 나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목재 시장거래 가격에서 벌목비용, 운반비용, 유통마진 등을 제외한 후 임목상태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
- 국민대차대조표에서는 자산별 스톡 이외에도 경제주체별, 경제활동별 순자본스톡과 생산자본스톡을 계산
- 경제주체별 및 경제활동별 자본스톡은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각종 행정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톡가액을 추계

- 자본서비스는 비금융자산이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자본서비스라고 하면 자본서비스물량을 지칭하는데, 자본서비스물량은 자본투입물량으로 측정함
 - 자본서비스물량지수는 특정 경제주체(경제주체별) 또는 특정 경제활동을 구성(경제활동별)하는 하위 자산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을 해당 자산의 사용자비용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지수형태로 계산한 것임
 - 자산의 사용자비용은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자본재를 임차할 경우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차료를 말하며, 자본재를 조달하기 위해 지불한 금융비용(기회비용), 자본재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감가상각)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함
 - 통계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현재 연쇄라스파이레스지수와 연쇄통크비스트 지수 등 두 가지로 자본서비스물량지수를 작성하여 제공

5. 작성주기와 공표 시점

-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연간기준으로 공동 작성하며 매년 7월 중순경 공표

6. 주요 발표 통계



7. 통계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자본스톡 통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과 그 구성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